

오피니언

다산포럼

남영신



작년 미국의 한 법학 교수가 쓴 교양역사서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자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질적인 것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큰 사회일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국가가 관용이라는 무기로 다른 민족이나 사회를 받아들일 때 부와 지배권력을 유지하여 세계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관용을 버리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바뀌어 이민족을 차별하고 다른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이 이룩한 부와 권력이 제국과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인가 '소한민국'인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관대함을 갖추어야 할 것 같아 보인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민족을 포용하던 로마와 몽골이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미국이 세계 제국을 이룩한 것은 다른 요인과 함께 이 관용정책 또는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책이 유

자가 백안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높이 사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우리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인이나 일본인보다 더 관대한 민족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더 한심하고 격정스러운 것은 정작 우리 가운데에서 '나의 반대편'을 향해 내뿜는 불관용이 극한에 이르러 있는 점에 있다.

것이 아니라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보수 우익' 인사들까지 나서서 그를 헐뜯는 모양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서 위대한 사람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을 위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탄압을 가는 옹졸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가 북한 동포를 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고, 동남아인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인배들의 사회에서 소인배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소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

경제난으로 더욱 살기 어려워진 요즘 우리 안에 새삼스럽게 반공주의나 애국주의 광풍이 일어나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차별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3불정책' 폐지 국민 합의없인 안 된다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인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정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문제는 대학 자율에 뒤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3불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다. 일부 명문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시도해왔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불정책"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고교 등급제는 사열화를 부추겨 과열경쟁과 사교육 '광풍'을 부르게 된다.

대교협은 고교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 된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교육을 지탱해온 '3불정책' 폐지는 대학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극심한 농어촌 가뭄 장기대책 서둘러야

지난 가을부터 계속되던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상치 않다. 강우량이 줄어든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이후의 강수량은 광주 111.3mm, 전남 108.6mm를 기록했다. 작년 강수량(광주 589.5mm, 전남 313.1mm)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가 가뭄 극복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구례, 여수, 무안, 신안 등 15개 시·군 190개 마을 1만3천여 세대 가 목욕탕 등 생활용수와 식수를 제한급수나 이동식 급수에 의존하고 있다.

말라비틀어졌고, 마늘 등 월동작물은 썩어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무 잎들도 단풍 물은 들지 않은 채 하얗게 말라버려 산불 위험도 커졌다.

가뭄 피해는 농어촌에 한정되지 않는다. 식수와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부족으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뭄 피해를 줄이려면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뭄은 20세기 지구촌 전체의 50%에 달할 만큼 인류가 당면한 문제다.

김정배추, 무 등 상당수 가을 작물은

無等鼓

유사 이래 요즘처럼 지구촌이 단어가 실감나는 시기는 없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유럽이나 아시아 가릴 것 없이 온 세상을 뒤흔치고 있다.

단 금융상품이 생산됐고 시장은 급속히 커졌다. 금융은 황금알을 낳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 세계적 각광을 받았다.

문제는 금융이 실물경제와 유기적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부나비처럼 오로지 수익성만 좇다가 저 혼자 너무 멀리 나가 버렸다.

탐욕과 위기



성 악화의 뒷에 걸려 이 지경이 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시장을 방치해서 이 꼴이 됐다며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돈' 때문이다. '광기, 패니,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를 집필한 경제사학자 킨벌버거는 '금융위기는 계속 피어오르는 길진 다년생화'라고 말했다.

그 뜻은 돈, 그 물신(物神)을 숭배하는 인간의 탐욕을 자양분으로 자란다. 그래서 인간은 안된다. 뭘 동원해도 재앙은 되풀이된다.

지금 주민들은 온통 자신의 집 물 끄기에 난리가 아니다. 진화 작업과 함께 그들은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 불은 왜 났는지 회

금용대란인만큼 원인은 금융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냈다. 애초에 금융이라는 것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간단한 시스템이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wangju.co.kr

특별기고

김포천



'춤은 육체로 쓰는 가장 아름다운 시(詩)이며 빈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외침이다' 이렇게 쓴 현수막이 무대 위에 높이 걸려 있었다.

NGO 칼럼

배오덕



음악은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연상하게 했다. 흑인 연가에서도 그것을 느끼며 판소리에서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나오는 영혼의 소리를 느끼게 하는 음악이다.

한국사회는 '정보화'와 '고령화'라는 현대사회의 두 가지 큰 시대적 흐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를 위해 노인시설 중 정보화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좋은 신규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고령층 스스로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대상 정보화교육이 실시된 이후, 노인들은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 나주를 본다

고독과 애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민속음악을 유랑민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일구워낸 음악이요 춤인 플라멩코다.

고령층 정보화 교육

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날 공연된 레파토리는 '인생의 향로'였다. 고독, 좌절, 그러나 다시 소망을 갖고 빛을 향해 떠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나주에는 '삼현육각'이라는 이름의 전통음악 단체와 함께 무지크 바운(음악나무)이라는 음악 일꾼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부여하는 과제는 노인들이 부담대상이 아니라 보다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로서 활동하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노인들의 삶의 질 자체도 개선하여 세대 간 통합된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의 목적은 정보사회의 주류에서 떨어진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노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주 이야기다. 지난 11월29일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스페인 플라멩코 공연을 나주 문화회관에서 본 소감의 일이다.

문화예술 활동은 건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일꾼들이 관심과 열정이다.

정부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으로 장·노년층 300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2010년경에는 장·노년층의 인터넷이용률을 6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보공유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그동안 축적한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다면 고령층은 고령화시대에 있어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시 준수사항 숙지 후 운행

꼭 막힌 고속도로 뚫어주듯,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은 시원스럽게 빠져 나간다. 일반 요금소는 요금을 내기 위해서 1~2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하이패스는 차로에 설치돼 있는 기지국과 차량 안에 있는 단말기 간의 무선통신을 통해 달리는 차가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어 소용이 원활하다.

이때 따라 도로공사에 하이패스차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통행료 미납차량 제한을 위해 고객이 하이패스 이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한 하이패스 이용 10계명을 제정, 홍보하고 있다.

10계명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 요령, 하이패스 문제 발생시 연락처 등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하이패스 고객이라면 하이패스 10계명을 준수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를 치하여 두고 압박을 해왔고, 국민들은 실음 속에서 살아왔다. 일제의 힘에 굴복해 1910년 8월 29일 조약이 체결됐을 뿐이다.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이 늘면서 하이패스 고속 통과와 이용방법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통행료 미납 차량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속회·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

▲박원선·광주시 북구 총동

그러나 정에서 압박과 설움을 받았던 일제 치하는 36년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속회·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

그러나 정에서 압박과 설움을 받았던 일제 치하는 36년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에서 압박과 설움을 받았던 일제 치하는 36년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술국치 이전에도 사실상 일제치하였다

광주일보 11월27일자 '35년이 채 안되는 일제치하 기간을 왜 36년이라 부르는가' 제하의 이세영씨 독자투고를 읽었다.

이 글에서 이씨는 일제치하 기간이 35년도 채 안된다고 산술 수치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씨는 일제치하 기간이 35년도 채 안된다고 산술 수치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씨는 일제치하 기간이 35년도 채 안된다고 산술 수치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